

No. 2013-25

일본 경제 동향

(Japan Weekly Economic Digest)

2013. 06. 17

- ① 일본경제지표
- ② 주간경제이슈
: 자동차 수요증가로 철강의 對중국
투자 확대
- ③ 경제정책동향
- ④ 일본기업동향
- ⑤ 한국관련워치

1 일본경제지표

□ 주간 시황지표

- 엔화환율 : 신흥국의 3저(주가, 채권가, 환율)영향에 따른 엔매입 · 달러매도 증가로 한때 94엔까지 상승
- 장기금리 : 엔고, 주가하락에 따른 안전 채권수요 증가로 1개월만의 낮은 수준으로 하락

구 분	6.10(월)	6.11(화)	6.12(수)	6.13(목)	6.14(금)
엔화의 대미달러화 환율(달러당)	98.25	98.15	96.40	94.75	94.65
엔화의 대원화 환율(100엔당)	1,130.33	1,136.67	1,178.48	1,181.22	1,188.27
닛케이평균주가(종가)	13,514.20	13,317.62	13,289.32	12,445.38	12,686.52
장기금리(10년물 국채금리, 연리%)	0.825	0.880	0.870	0.855	0.815

□ 주요 거시경제지표

- 1분기 실질 경제성장률은 연율 3.5%→ 4.1%로 상향조정
- 4월중 경상수지는 7,500억엔 흑자로 3개월 연속 흑자 기록
- 5월중 미 달러에 대한 엔화 환율은 전월보다 엔저, 장기금리는 상승

구분	2011	2012	2013				
			1월	2월	3월	4월	5월
실질GDP증가율(연율,%)	0.3	1.2(2.0)	4.1			-	-
수 출(천억엔)	653	639(637)	48	53	63	58	-
수 입(천억엔)	697	721(707)	64	61	66	67	-
對한국 수출	52.1	49.7(49.1)	4.01	4.25	5.21	5.07	-
對한국 수입	32.9	32.8(32.4)	3.12	2.92	2.81	2.58	-
직접투자(억달러)	(1,157)	(1,223)	226			-	-
對한국 투자	(24)	(40)	7.5			-	-
소비자물가(%)	0.0	▲0.2(0.0)	▲0.3	0.1	0.3	0.3	-
실업율(%)	4.5	(4.4)	4.2	4.3	4.1	4.1	-
경상수지(천억엔)	76.2	42.9(47)	▲3.6	6.4	12.5	7.5	-
엔화 對미달러	79.1	82.9(80.1)	89.2	93.2	94.8	97.7	101.08
환율 對원화(100엔)	(1,391)	(1,413)	1,197	1,166	1,161	1,148	1,100
외환준비고(기말, 천억달러)	12.9	12.5(12.7)	12.7	12.6	12.5	12.6	12.5
국채금리(10년, 연리%)	0.985	0.560	0.740	0.665	0.560	0.600	0.860

주1) ()는 역년(1~12월)기준

2) 소비자물가, 실업률, 환율은 기간평균, 자료: 닛케이신문, 재무성, 한국은행

□ 주요 보고서 워칭 사이트(report watching site)

- 『해외직접투자과 원산지규칙을 고려한 FTA의 후생효과 분석』 경제산업연구소, 6월14일
*출처:<http://www.rieti.go.jp/jp/publications/dp/13e053.pdf>
- 『새로운 성장전략, 「일본재흥전략 : Japan is back」』 총리관저, 6월14일
*출처:http://www.kantei.go.jp/jp/headline/seicho_senryaku2013.html

② 주간경제이슈 : 자동차 수요증가로 철강의 對중국 투자 확대

□ 신일철주금의 강판공장 대중 투자, 중일관계 악화 이후 최대 규모

- 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신일철주금이 중국에서 자동차용 고급강판 신규공장을 설립키로 함
 - 중국 최대 철강업체인 보강집단과의 합작회사에 약 300억엔을 투자하여 생산능력을 40% 확대
 - 그동안 중국에서 구미기업들에게 뒤져있던 일본계 자동차업체들의 반격이 시작됨에 따라, 신일철주금이 자동차 제조용 소재의 증산에 나선 것임
- 중국 국내에서 철강의 공급과잉이 계속되고 있으나, 고부가가치제품인 자동차용 강판만은 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, 중국정부도 고도기술을 수반한 투자를 요구하고 있음
- 신일철주금의 신규 공장건설은 작년 가을 반일데모 이후 일본기업으로는 최대 투자임
 - 중국 상무성 자료에 의하면 '13년 1~4월 기간 중 일본의 대중 직접투자는 반일데모의 영향으로 2012년 16.3%증가에서 9.2%증가로 둔화된 29억 4,400만달러를 기록

□ 고급강판 공급으로 일본계 자동차업체들의 생산 확대를 지원

- 신일철주금은 상해시에 있는 합작회사 보강신일철자동차강판(BNA)에 자동차용 아연도금강판의 대형 생산라인을 증설키로 함
 - BNA에는 보강집단과 50%씩 출자하여 중국 당국으로부터 허가가 나오는 대로 착공할 예정으로 빠르면 2015년 내에 가동을 목표
- 중국에서 생산하는 아연도금강판은 녹방지처리용 고급강판으로 신규 생산라인의 생산능력이 연간 50만톤 규모
 - 생산라인을 증설하면 BNA의 생산능력은 40% 증가한 연간 180만톤으로 일본 국내생산의 20%에 상당하는 규모인데, 주로 일본계 자동차업체에게 공급을 늘릴 계획
- 중국경제의 성장둔화와 인건비 급등으로 현지생산을 보류하려는 움직임도 있으나, 경쟁력 있는 자동차용 강판은 중국의 내수기반이 탄탄한 것으로 신일철주금은 판단
 - 중국 정부도 고도기술이 수반된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에 주력

□ 중국의 자동차 수요증가에 대비한 글로벌 자동차기업들의 현지생산능력 확대

- 최근 중국은 경기회복세가 부진한 가운데서도 보급률이 낮은 내륙부에서 수요가 확대되어 신차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음
 - ‘13년 1~5월 기간 중 판매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2.6% 증가
- 이에 독일의 폭스바겐, 미국의 GE, 한국의 현대자동차 등도 생산라인 증강을 서두르고 있음
- 2012년 중국 승용차시장에서 일본 자동차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은 20% 미만
 - 작년 반일데모 이후 부진을 거듭하고 있으나, 13년 5월 판매대수는 일본계 6개 업체 중 4개 업체가 전년 동월을 상회하는 수준까지 회복
 - 일본계 자동차 6개 업체의 전체 생산능력은 2015년까지 지금보다 50% 증가한 530만대로 증가할 전망
- 도요타자동차가 ‘13년 5월 중국에서 하이브리드자동차용 전지의 합작생산에 합의하는 등 일본 자동차업체는 미래를 대비한 연구개발 거점 설립 등 생산체제 정비를 서두르고 있음

□ 고급강판도 對중국 수출에서 중국 현지생산으로 전환

- 신일철주금이 강점을 지닌 고급강판은 향후에도 수요증가가 확실시되고 있음
 - 고도기술이 필요한 아연도금강판은 이전부터 수요가 많았으나 지금까지는 현지의 수요 증가에 수출로 대응해 왔음
 - 그러나 현재 8%의 고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등의 이유로 현지 생산을 결정하게 된 것임

③ 경제정책동향

□ 경제산업성, JIS 규격을 강화하여 국내 제품 보호

- 경제산업성이 일본공업규격(JIS)을 개정할 방침
 - 자동차부품에 사용되는 금속제품과 소재제품을 현행보다 높은 기준을 신설하여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새로운 규격을 도입
- 저가 중국제품 등 외국제품을 규제하고 일본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국제표준 획득을 목표로 하여 일본기업의 국제화를 지원할 계획
- 경제산업성은 높은 수준의 제품품질을 정한 「고기능화JIS」를 새로 제정할 예정인데, 금년 4월에 트럭의 엔진부분에 사용되는 철소재에 먼저 도입한 바 있음
 - 철소재는 강도나 내열성에 따라 5단계의 JIS를 제정, 고품질의 철소재는 보다 높은 등급의 JIS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
- 금속이나 화학제품 등 소재를 중심으로 2015년까지 수십 건의 업그레이드된 고급판 JIS를 인정할 방침인데, 몇 단계로 구분할 것인가는 소재에 따라 결정
- 외관상으로 품질의 차이를 구별하기 어려운 소재제품은 업그레이드된 JIS를 통해 일본제품의 품질을 구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JIS제도의 도입 취지
 - JIS기준을 초과하는 일본제품과 JIS기준을 겨우 충족시키는 외국제품을 명확히 구별케 함으로써, 가격경쟁의 늪에 빠질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인데 구매자들이 제품 구입 시, 하나의 판단기준이 됨

□ 일본정부, 에너지백서에서 원전제로 방침 재검토

- 일본 정부는 14일 발표한 ‘2012년판 에너지백서’에서 민주당 정권이 제시한 2030년대 원전가동 제로방침은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면서, 안전이 확인된 원전을 재가동할 방침임을 강조
 - 모테기 경제산업대신은 에너지정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는 내용을 기술했다고 설명
- 일본의 에너지자급율은 원자력을 제외하면 4%로 90%를 넘는 중국 등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낮은데다, 송전선과 파이프라인을 통한 근린 국가들과의 에너지 융통도 용이하지 않다고 위기감을 나타냄
- 자원이 부족한 일본은 에너지원의 다양화와 조달처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, 일본산 자원으로 기대되고 있는 메탄하이드레드의 생산기술개발을 서두르는 한편, 미국의 셰일가스를 활용할 방침

4 일본기업동향

□ 가와사키중공업 · 미쓰이조선 경영통합 보류

- 가와사키중공업과 미쓰이조선은 4월 22일 경영통합을 발표하였으나, 1개월 만에 교섭중단을 선언
 - 가와사키중공업 내에 경영통합을 반대하는 일부 임원들이 사장 해임을 주도하여, 신임 사장체제에서 교섭 중단을 결정
 - 무라야마 신임 사장은 “경영전략으로서 M&A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” 하여 향후 조선사업의 재편가능성 여지를 남겨 둠
- 가와사키중공업에서 교섭중단을 통보받은 미쓰이조선은 새로운 제휴파트너를 필요로 하고 있음
 - 미쓰이조선은 가와사키중공업과의 경영통합은 공동수주에 의한 영업력 강화, 생산거점의 재편 등을 통해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이었음
 - 향후 미쓰이조선이 단독으로 생존전략을 모색하기에는 과제가 많아, 국내외 조선중기회사 등과의 제휴를 서두를 필요가 있을 것으로 관측
- 그러나 미쓰이조선이 해양자원개발 분야에서는 동종업계보다 경영실적이 우수하고, 기술력도 가지고 있어 가와사키중공업도 이 분야를 중시하고 경영통합을 모색하였던 것임
- 미쓰이조선이 해양개발 경험을 전면에 내세워 교섭을 하면, 새로운 M&A 기회가 있을 것으로 관측
- 가와사키중공업, 미쓰이조선 모두 조선사업의 경영환경이 어려운 만큼, 향후 JMU*와 미쓰비시중공업을 포함하여 업계재편 움직임이 계속될 전망

*JMU : JFE계열과 IHI계열의 조선자회사 간의 경영통합으로 탄생한 저팬마린유나이티드

□ 일본의 해외 직접투자공장, 70%가 U턴하지 않을 것

- 닛케이신문의 조사에 의하면 엔저가 지속된다고 해도 해외공장을 일본 국내로 U턴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69%를 차지
 - 법인세 인하 등 규제완화의 필요성과 향후 내수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 주된 이유
- 21세기 일본의 경제성장을 주도할 산업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림
 - 일본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의료 관련 서비스가 28%로 수위
 - 소재 관련 제조업이 23%로 2위인 반면, 침체 일로에 있는 전자제품 관련 제조업은 5%에 불과

5 한국관련워치

□ NTT데이터, 한국에서 사업 확대

- NTT데이터가 한국에서 데이터서비스사업을 확대할 예정
 - NTT데이터는 LG전자의 자회사와 제휴하여 부산의 데이터센터에서 일본기업에게 정보데이터서비스 실시
- 한국은 지진 등 자연재해가 적고 데이터 이용료도 아시아에서 가장 저렴하다는 메리트가 있어, 사업계속계획(BCP) 강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일본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다고 닛케이 신문이 보도
- NTT데이터는 6월부터 대고객 영업활동을 본격화할 예정
 - LG전자의 정보시스템자회사인 데이터센터는 연면적 32,000평방미터, 고성능 컴퓨터인 서버나 데이터를 저장하는 외부기억장치를 격납하는 랙을 3,000개 보유
- NTT데이터는 일본기업들을 위해 일본어 가능한 시스템운용 담당자를 상주시키는 한편, 도쿄에 있는 시스템 일부를 부산 데이터센터로 이전하여 검증
 - 데이터센터는 트러블발생 시에 일본어로 문제없이 운용할 수 있으며, 한국 데이터센터의 이용료는 일본의 70~80%로 코스트 절감 예상
 - NTT데이터는 일본의 고객들에게 백업 용도로 제안한다는 전략

□ 중국과의 FTA를 최우선하는 한국의 신통상전략

- 닛케이신문은 14일,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「신 통상정책 로드맵」에 대해, 한중 FTA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, TPP는 관망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한편, 국내 산업과 농업의 배려를 중시하는 자세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라고 보도
- 한중FTA 중시, TPP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와 관련해서는 중국을 크게 배려한 반면, 일본과의 경쟁에서 우위확보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평가
- 동시다발적 FTA추진이 특징이었던 과거 공세적인 통상전략에 대한 반성으로 FTA전략을 재검토
 -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 진흥책이 경제적 격차를 확대시켰다는 비판을 의식, FTA는 추진하되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
 - 국내에서 마찰 가능성이 있는 FTA는, 쇠고기 등 현안교섭이 중단된 캐나다와 호주, 역사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
- 농업단체의 강한 반발을 의식하면서도 한중FTA를 최우선, 만일 중국이 한국에 큰 양보를 할 경우 한국의 대중국 의존은 더욱 가속될 것으로 예상